

# ‘천원국시’ 설 연휴에도 영업...“끼니 걱정 덜어 다행”

## 상무1동·금회동 식당 가보니

오픈 시간부터 손님들로 매장 ‘복적’ 서구, 천원국시 2곳 설 명절 운영 홀몸 어르신 등에 대체식 제공도 “소외되는 시민 없도록 도울 것”

설 연휴를 앞둔 23일 오전 찾은 광주 서구 금회1동(금화로 103번길 5) 천원국시 매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국수를 찾아 온 시민들로 오픈 시간부터 북적이는 모습이였다.

매장 문이 열리자 손님들은 익숙한 모습으로 번호표를 뽑아 자리를 잡았고, 이내 차례대로 국수를 받아 갔다.

따뜻한 국수를 한 그릇 받아든 이성열(70)씨는 설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연다는 소식에 안도했다. 그는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푸짐해서 자주 찾게 된다”며 “연휴 동안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했는데, 명절에도 운영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웃음을 지었다.

‘잘 먹고 간다’고 말하며 걸음을 옮기던 한 손님은 매장 한쪽에 마련된 나눔냉장고에서 즉석식품을 챙겨가려는 직원의 말에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처음 매장이 생겼을 때부터 일했다는



23일 광주 서구 상무1동 천원국시 매장 내부는 국수를 먹기 위해 방문한 손님들로 가득했다.

차송자(64)씨는 “원래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을 했었는데,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곳이 마련된다는 소식에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고 싶어 일하게 됐다”며 “더 홍보가 많이 돼서 취약계층 이웃들이 찾아와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상무1동(쌍촌마을어울림센터 1층) 천원국시 매장 역시 연휴를 앞두고

많은 손님이 방문해 국수를 먹고 있었다. 이곳을 자주 찾는다는 이근옥(78)씨는 “가격이 저렴한데 맛까지 좋아 지인들과 자주 온다. 매장에서 오다가다 만난 이웃들과 대화를 하는 등 소통의 장으로도 이용되고 있다”며 “긴 설 연휴를 혼자 보낼까봐 걱정했는데 천원국시 덕에 따뜻한 명절을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서구가 운영 중인 천원국시는 취약계층

이웃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구시니어클럽 회원들이 직원으로 나서면서 끼니 해결과 일자리 제공 효과를 내고 있다.

천원국시는 점심시간에 운영되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2인 이상 가족동반이용자는 국수 한 그릇당 1000원, 그 외 주민들은 3000원을 받는다.

서구는 설 연휴 기간에도 매장을 운영

해 끼니 해결이 어려운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위해 온정 나눔을 이어간다.

서구는 설 당일(29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24-28일) 동안 두 매장을 무료로 운영하며, 결식 우려가 있는 주민들에게 하루 100그릇씩 국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에는 국수 제공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도 병행한다. 천원국시 매장을 찾은 이용자들에게는 4인분 분량의 설맞이 국수 키트를 배부하며, 매장 내 나눔냉장고를 통해 즉석식품과 식재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구는 또 독거 어르신과 결식 우려가 있는 2000여 세대에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밀키트와 같은 대체식을 지원하며, 설 연휴 전날인 24일에는 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서 명절 특식을 마련해 온정을 나눌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설 명절에 끼니 걱정이 앞서고, 외로움이 커지는 이웃들이 많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놓치지 않는 것부터 ‘복지특세 제로(0), 열두 달이 행복한 착한도시 서구’ 실현이 시작된다”며 “따뜻한 온기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정상이 기자 sanga.jeong@jnilbo.com

## “명절 치안유지 총력”... 광주 북부경찰 우범지역 특별순찰

안전취약 공원·화장실 방범활동 비상벨 등 범죄예방시설물 점검 광주·전남 ‘특별치안 기간’ 운영 “평온한 설 명절 보내도록 최선”

“시민들이 평온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경찰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23일 오전 광주 북부 문화근린공원 일대에서는 북부경찰·북구·효령실버안심순찰대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한’ 순찰대가 방범활동을 펼쳤다. 이날 순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북부경찰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순찰대는 휴일동안 시민들의 이용이 늘어나는 공원 일대와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안전 취약 지역을 살피고, 범죄예방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를 살피며 범죄 예방에 주력했다.

경찰은 직접 공원과 공중화장실 곳곳에 설치된 비상벨 사용 시범을 보이면서 유사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정민환 북부경찰 범죄예방대응과 경위가 공중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비상벨을 시험 가동하자 신호는 곧바로 광주경찰 관제센터로 연결됐고, 화장실 밖에 설치된 경광등에서는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신호를 접수한 담당자는 “위치가 문화근린공원의 화장실로 확인된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느냐”며 신속히 상황을 확인했다.

정 경위는 “비상벨을 사용하면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전달되며, 가까운 순찰차에 출동 명령이 내려진다”며 “벨을 누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소리



설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23일 오전 광주 북부 문화근린공원 일대에서 북부경찰·북구·효령실버안심순찰대가 순찰활동을 펼쳤다. 정민환 광주 북부경찰 범죄예방대응과 경위가 비상벨 작동 시범을 보이고 있다.

를 지르면 화장실 내부의 음성 감지 시스템이 작동,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돼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순찰대는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해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공원과 인근 골목길 등 우범지역을 세밀하게 살피고, 시민들에게 범죄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순찰을 마친 뒤 경찰은 효령실버안심순찰대를 대상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을 겨냥한 피싱 범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설 명절은 가족과 지인 간의 연락과 택배 배송이 늘어나, 메시지 속 악성 링크를 포함하는 등 각종 속임수로 타인을 기망하는 피싱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정 경위의 설명이다.

그는 “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 복구가 오

래 걸릴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에 대해 즉시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절대로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런 정보를 주변인들에게 전달하며 모두가 함께 범죄 예방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설 연휴 기간은 시민들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각종 범죄가 늘어 치안 수요가 증가한다. 특히 이번 연휴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예년에 비해 길어지면서 북부경찰을 비롯한 광주·전남경찰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1일동안을 특별치안활동 기간으로 지정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용관 북부경찰서장은 “절도와 보이스 피싱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범죄에 대해 적극·엄정 대응하겠다”며 “지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경찰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 광주·전남 설 연휴 ‘많은 눈’... “귀성길 교통안전 유의”

### 27일 오후부터 기온도 ‘뚝’

설 명절 연휴기간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눈과 함께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2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본격적인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27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

24일부터 27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은 최저기온 영하 4도~0도, 최고기온 8도~13도로 평년보다 2~7도 높은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27일 오후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평년보다 1~3도 가량 낮은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떨어진 기온은 연휴 마지막날인 30일부터 차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명절 연휴기간 광주·전남지역에는 많은 눈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 겠다.

27일 광주와 전남 전역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고, 28일과 설 당일인 29일에는 광주와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 기간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기간 많은 눈이 내리고,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크게 내려가는 만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과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겠다”며 “연휴기간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먼바다에 매우 높은 물결이 지속돼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도서지역으로 오가는 여객선 운항 여부를 꼭 확인하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명 기자

## 아이파크 붕괴 사고 ‘불법 재하도급’ 대표들 항소심도 점유

### “원심서 양형 모두 고려... 항소 기각”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23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현건설 대표 A(54)씨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펄프카업체 대표 B(65)씨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11일 오후 3시 45분께 붕괴사고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건설업계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관행처럼 여겨지는 정황과 이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해당 공사현장의 타설 콘크리트 양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 받으며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은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했기에 양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